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rman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06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2월 6일(음력 10월 16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태양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다!

오늘은 우주의 섭리나 태양의 섭리나 별성의 섭리가 인간의 육성의 섭리와 똑같은 것을 여러분 앞에 거론할까 합니다.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태양이 광대무변하게 비취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티끌 같은, 한 개의 촛불 같은, 그런 조그마한 한 티끌의 불씨 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 누리를 태양보다도 더 깊고 무변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땅 속이나 물 속이나 어디나 미처는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의 근본도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근본이 전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번 태양계의 뜻을 살펴봅시다. 지난번에는 지구에 관한 것을 잠깐 거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문제를 볼 때에 거기에 오장육부가 있고 삼계(三界)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는 활력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태양의 그 근본 자체가, 그 중심이 삼각으로 원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근본적으로 그 안을 본다면 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불덩이 같으니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불덩어리 줄이 있는데, 그렇게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속에 찬게 없으면 더운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안이 뜨겁다면 바로 바깥으로 찬게 없습니

의 역할처럼 꼭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보로 인해서 모든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간 무전통신기가 항상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발전기가 항상 돌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육성이 만약에 사흘을 돈다면 그건 일 초를 돌고 있습니다. 움직여서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태양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다.'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체가, 예를 들어서 태양의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타 죽고 없지않겠지요? 물질이라는 건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바로 그 뜻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생명이 아니, 체 없는 생명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뜨겁겠습니까? 그것은 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태양 빛을 내리쬐어서 만물을, 곡식을 익혀 여러분 입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다면 만 백성을 다 한 팔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잘 낸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뛰어 넘지 못하고 참...
우리는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자신의 그 광대한 능력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을 이끌어온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고 또 자기 능력을 아주 포기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주 대천세계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등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미생물로부터 큰 짐승으로 이렇게, 물에서도 나고 화(化)해서도 나고 그 후에는 알로 낳게 됐고 태로 낳게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비유를 해서 지금 지구에서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인공위성을 띄운다. 우주정거장을 세운다' 이러한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서 우주에 상응도 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서류도 올리지 않고 우주정거장을 세운다면 우주정거장은 파괴될 수 있는 우리가 심중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그 섭리에 서로 상응을 할 줄 모른다면, 바로 회의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바깥으로 권위를 쥐고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부딪치면 부딪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타버리고 나가고 부서집니다.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물질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지혜를 넓힐 수도 있고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철단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이 자체도 무시해서는 아니 되죠. 모두가 이 육신을 받았기에 진화력을 가지고서 창조해 온 거 아닙니까? 거들거들 거쳐 가면서 물에서 나오면 추워서 털옷을 입고 또 털옷만 입어도 그건 살기가 부적당하고 괴로워. 그래서 점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자꾸 괴로운 것을 털어버리고 자꾸 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 떠 떠는 여기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이치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워낙 많은 생명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한 일억년 전이라고 본다면 아마 우리 귀도 이만큼 길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진화를 했겠지요. 미생물에서부터 거추는 것이 다 조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나 아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조상이요, 전자 후자가 다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과거다 미래다 할 것 없이, 우리가 전자에서부터 쭉욱 계산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진화돼 왔으니 그 살던 습에 의해서, 그 착에 의해서 습이 조랑조랑 조랑조랑 떨어져서 지금 여기 와서 물들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에나 생시에나 그 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인연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끊을 수도 없고 칼로 벨 수도 없어요. 무의 칼이 아니라면 끊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무의 줄이기 때문에, 무의 인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던 습의 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랑조랑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 지금 여기에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과거에 있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일심에서 나가는 거 일심으로 든다. 일심으로 들면 일심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오고 든다. 그러나 내 주인공을 발견해라! 내 주인공을 발견할 때는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절대로 틀로 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자고 깨고 먹고 하는 것이 전체 참선이지 참선이 따로 있어서 결제 해제가 있고, 참선이 따로 있어서 앉아서 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상은 명상이라는 이름이 있고, 좌선은 좌선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떠나서 진실한, 인간이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바로 참선이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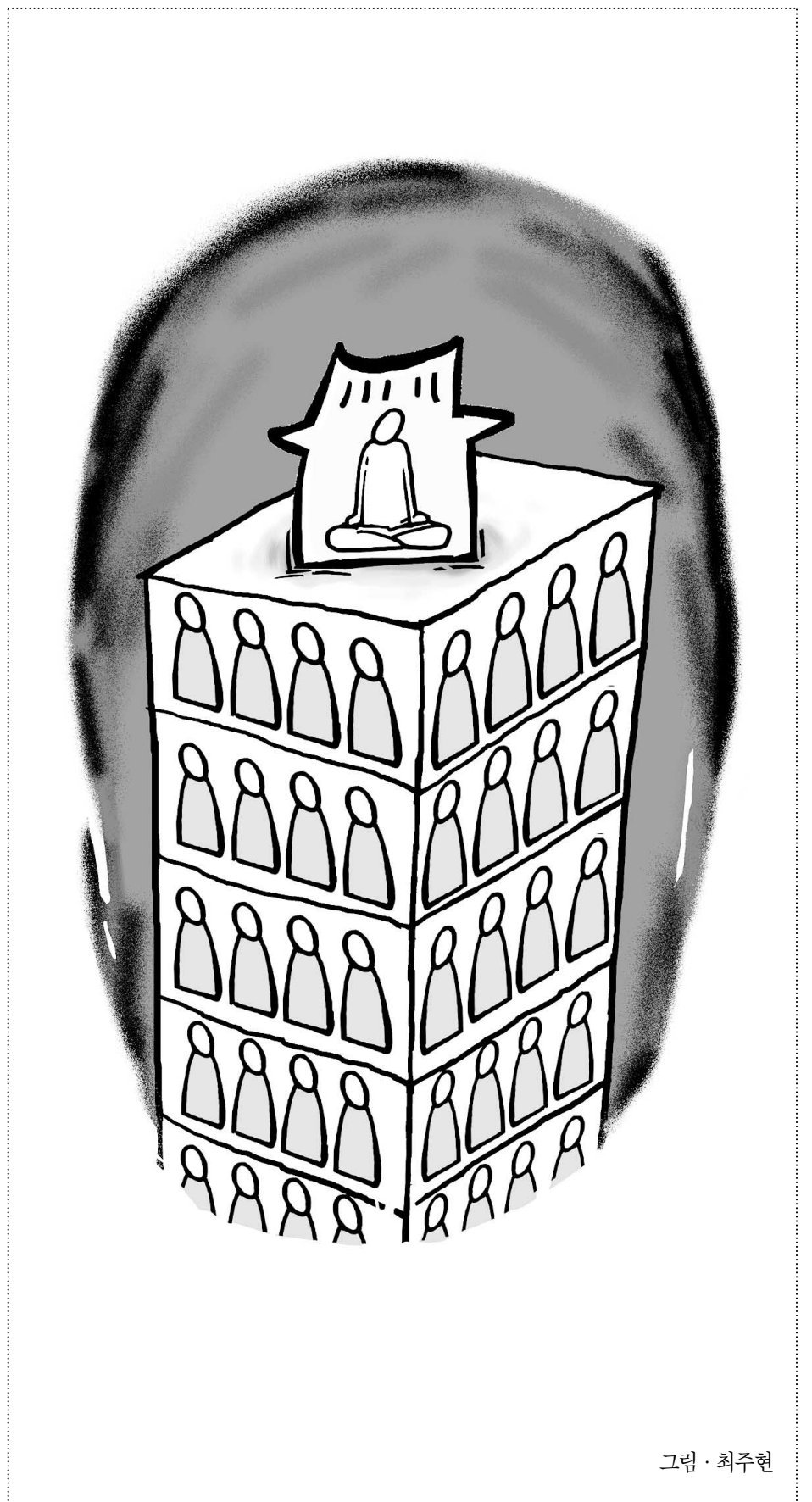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모든 것을 조그맣게
독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독 바깥으로 훌쩍 넘어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 ”

다. 여러분은 정맥 뚫음이 오르내리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뚫고있다면 양면으로 다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라고 얘기했지요? 접촉 같은 물을 자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뜨거운 물은 아닙니다. 참니다. 그것을 자아내는 반면에 한 계단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와 같은 것, 즉 말하자면은 우리와 같은 것이 돌면서 바로 그 물을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고 도는 땅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물을 땅사로 내보내는데 그 땅사는 쇠입니다. 쇠망입니다. 금속 쇠망. 내보냄으로써 거기에 그 물로 증기를 일으켜서 바깥으로 화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한 켜는.

여섯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없는 여섯 계단이 있어서 내보내는데 하나는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바깥 계단기가 세 계단기가 있는가 하면 안 계단기가 여섯 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알뜰알뜰한 막 또는 망 같은 문제, 자아내는 그 자체는 세 계단이 되기까지는 참니다. 그러나 네 계단 때 쯤서는 뜨거운 것을 자극해서 바깥으로 화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 안으로 들어보내지 않는 작업을 안쪽에서는 하고 하의 바깥 계단기에서는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불길, 즉 말하자면 뜨거운 김이 나가는 걸 바깥 계단 쪽에서는 잡아당기면서 가운데서는 조절을 합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조절을 하면은 바깥 계단기에서는 그걸 정돈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력이 바깥으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았다면 타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았다면, 정수에, 즉 말하자면 체내의 모든 것이 중심으로 들지 않는다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인간

해왔습니까? 이 지구에서도 지금 인간이 되려고 무척 애쓰는 게 있습니다. 모습을 차츰차츰 바꿔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인간을 봐야만 자기가 그 모습을 타고나겠기에 인간을 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납치해서 그 모형을 그대로 본다면 바로 자기 몸을 그대로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은 있으나 바로 봐야, 먹어봐야 또는 들어봐야 모든 것을 알겠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경쟁으로써 발전을 이룬 겁니다. 우리 인간 되는 것도 경쟁을 해서 인간이 됐고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량이라는 자체, 우주 전체의 한 도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쪽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먹으려 하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를 뺏으려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의 우리 사정은 더 치열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넓고 묘하고 또 생동력 있게 나 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대인이라면 우리는 앉아서 호국불교를 할 수 있고 앉아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앉아서 우주에 상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쯤 몸이 나서서 호국불교를 하고 우주에 상응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하나가 지금 미국을 가려도 그렇고 소련을 가려도 그렇고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그렇게 몸뚱이가 다니면서 퍼는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한생각으로 우주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 하나 하나에게 더불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대무변한 이 법을 상실하고 배척하고 자기

각하지 말고 독 바깥으로 훌쩍 넘어나가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나름대로. 지구가 독이러면 나라를 세워서 독 안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있고, 또 나라를 세워보았으면 자기 집을 독 안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몸을 독 안으로 만들어 놓고, 몇 겹으로 독 안을 만들어 놓고 거꾸꾸 거꾸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뛰어넘어보지 못하는 이러한 관개상 우리는 해탈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어서, 하나도 문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문이 많아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한생각에 달린 거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한번 훌쩍 뛰어넘어서 저 허공으로 무중력 상태로 나가보십시오. 그 마음, 한 점의 마음으로써 우주세계를 한꺼번에 들입니다. 들었다 놔다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이 바로 한 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로 현용할 수 없는 능력의 강한 생동력입니다.

우리의 섭리가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태양계나 다른 혹성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천세계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주로 말하자면 중간 우주다 이 소립니다. 상 우주가 있고 중간 우주가 있고 소 우주가 있어. '대요.' 하고 나설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그맣게 독 안에서만 생

각하지 말고 독 바깥으로 훌쩍 넘어나가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나름대로. 지구가 독이러면 나라를 세워서 독 안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있고, 또 나라를 세워보았으면 자기 집을 독 안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몸을 독 안으로 만들어 놓고, 몇 겹으로 독 안을 만들어 놓고 거꾸꾸 거꾸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뛰어넘어보지 못하는 이러한 관개상 우리는 해탈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어서, 하나도 문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문이 많아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한생각에 달린 거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한번 훌쩍 뛰어넘어서 저 허공으로 무중력 상태로 나가보십시오. 그 마음, 한 점의 마음으로써 우주세계를 한꺼번에 들입니다. 들었다 놔다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이 바로 한 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말로 현용할 수 없는 능력의 강한 생동력입니다.

우리의 섭리가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태양계나 다른 혹성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천세계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주로 말하자면 중간 우주다 이 소립니다. 상 우주가 있고 중간 우주가 있고 소 우주가 있어. '대요.' 하고 나설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그맣게 독 안에서만 생